

뒷심 부족 페퍼스 기다렸던 첫승 불발



V리그 인삼공사전 1·2세트 따냈지만 내리 3세트 내줘 리드 25점·이한비 17점 분전에도 위기 관리능력 한계

광주 AI페퍼스가 다잡은 첫승을 놓쳤다. AI페퍼스는 6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에서 KGC인삼공사에 세트스코어 2-3(25-19, 25-15, 19-25, 23-25, 13-15)으로 역전패했다. 개막 이래 3연패를 당한 페퍼스는 이날 첫 승을 노렸으나 연패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페퍼스는 지난 시즌부터 이날 경기까지 인삼공사와 7차례 격돌했으나 모두 졌다. 비록 패배했으나 페퍼스는 승점 1을 따내며 올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 경기의 최대 승부처는 5세트. 페퍼스는 12-12로 팽팽한 상황에서 인삼공사 엘리자벳에게 백어택을 허용해 12-13으로 결정적인 리드를 빼앗겼다. 회심의 반격을 노리던 페퍼스는 니아 리드가 백어택으로 승부의 물줄기를 돌려려 했으나 아웃이 선언되면서 14-13으로 스코어가 벌어졌다. 인아웃이 애매한 상황에서 주심이 비디오 판정을

요구했으나 아웃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곧바로 김형실 감독이 터치아웃 판독을 요구했으나 노터치로 판정되면서 고개를 떨궈야 했다. 인삼공사 엘리자벳은 백어택으로 피말리던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페퍼스 니아 리드가 25점을 뽑았고 이한비 17점, 최가은이 11점을 뽑아내는 등 맹활약했다. 하지만, 주포의 공격력에서 승부가 갈렸다. 리드가 25점을 뽑아내며 공격을 이끌었으나 엘리자벳은 34점을 뽑아내는 파괴력을 선보였다. 지난 시즌 페퍼유니폼을 입었던 엘리자벳은 친정팀에 비수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엘리자벳은 고비때마다 승부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공격력으로 팀을 이끌었다. 페퍼스로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가 됐다. 페퍼스가 범실을 19개로 묶은 반면, 무려 35개의 범실을 쏟아내며 흔들리던 인삼공사에게 일격을 당했다. 1세트는 페퍼스의 완승이었다. 1세트를 상대 범실로 리드를 잡은 후 단 한 차례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세트를 마무리했다. 니아 리드의 백어택으로 19-16으로 올라선 이후 상대 실책으로 22점까지 올라간 후 니아 리드가 연거푸 점수를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도 무려 9개의 범실을 기록한 인삼공사를 25-15로 멀찍이 따돌리며 승리, 올시즌 첫승 기대감을 부풀렸다. 이날 승부는 뒷심에서 갈렸다. 페퍼스가 2세트를 먼저 잡고도 흐름을 타지 못했다. 반면 인삼공사는 배랑으로 몰린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를 살려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인삼공사는 주전 세터 염혜선 대신 신인 세터 박은지를 3세트부터 선발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꿨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인삼공사 유니폼을 입은 박은지는 적절한 볼 배분으로 3세트 엘리자벳과 박혜민이 나란히 8점씩 올리는 데 힘을 보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6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광주 AI페퍼스와 KGC인삼공사의 경기에서 페퍼스 리드가 스파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도의 딸' 이소미 2주 연속 '제주의 여왕' 등극

KLPGA 에쓰오일 챔피언십 연장전서 나희원 꺾고 우승

이소미(23)가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짜릿한 연장전 승리로 2주 연속 우승하며 '제주 여왕'의 입지를 굳혔다. 이소미는 6일 제주도 제주시 엘리스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6711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이소미는 나희원(28)과 연장전을 치렀다. 18번 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전에서 이소미는 세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으로 보내 우승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나희원의 세 번째 샷은 그린 경사를 타고 홀에서 멀어지며 14.5m 거리에 놓였다. 나희원은 버디 퍼트가 길게 지나갔고, 파 퍼트마저 빗나가 보기로 연장 첫 홀을 마쳤다. 이소미는 지난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KLPGA 투어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도 우승, 2주 연속 제주도에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두 대회 우승 상금은 모두 1억4400만원씩으로 이소미는 단숨에 2억8800만원을 모았다.

특히 이소미는 자신의 통산 5승 가운데 3승을 제주도에서 따내며 제주 대회에 유독 강한 면모를 이어갔다. 작년에 제주도에서 치른 4개 대회에서 우승, 3위, 4위를 했고, 올해는 네 차례 제주도 대회에서 준우승→8위→우승→우승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소미는 5승의 박민지(24), 2승씩 거둔 조아연(22)과 김수지(26)에 이어 시즌 네 번째 다승자가 됐다. 이소미는 13번 홀(파4)에서 83m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으로 이글을 잡는 행운을 받판으로 당시 선두였던 나희원을 1타 차로 압박했다. 이후 15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기록해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다. 이번 대회 3, 4라운드에서 5타씩 줄인 뒷심이 대단했다. 반면 투어 첫 우승에 도전한 나희원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약 5m 버디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해 연장에 끌려들어 갔다. 김희정(21)가 9언더파 279타로 선두에 1타 뒤진 단독 3위, 3라운드까지 나희원과 공동 선두였던 오지현(26)이 8언더파 280타로 단독 4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결과로 박민지가 상금왕을 확정했다. 박민지는 3오버파 291타로 공동 35위에 그쳤으나 상금 2억 김수지 1오버파 289타, 공동 26위로 대회를 마쳐 박민지의 상금왕 2연패가 결정됐다. 시즌 최종전을 남긴 현재 박민지의 상금은 약 12억7000만원이다. /연합뉴스



이소미가 6일 열린 'S-OIL 챔피언십 2022'의 최종라운드에서 아이언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김예림 시니어 그랑프리 첫 은메달

김연아 이후 최고 성적

'피겨 장군' 김예림(단국대)이 생애 처음으로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예림은 5일(한국시간) 프랑스 앙제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그랑프리 드 프랑스'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2.82점, 예술점수(PCS) 65.01점, 감점 2점, 합계 125.83점을 받아 쇼트프로그램 점수(68.93점)를 합한 총점 194.76점으로 12명의 출전 선수 중 2위에 올랐다. 김예림이 메이저 대회인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시상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 여자 싱글 선수가 시니어 그랑프리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도 '피겨 퀸' 김연아의 은퇴 이후 첫 번째다. 올 시즌 그랑프리 대회엔 피겨 강국 러시아 선수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징계로 출전권을 잃으면서 한국 선수들의 입상 기회가 많아졌다. 시니어 그랑프리 포인트 13점을 획득한 김예림은 이달 말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5차 대회를 통해 왕중왕전인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노린다. 경기 뒤 그는 매니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시니어 그랑프리 은메달 김예림. /연합뉴스

해 "오늘 큰 실수가 두 번이나 나와 많이 아쉬웠는데, 좋은 결과 얻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가오는 5차 그랑프리에선 아쉬웠던 부분을 잘 보완해 후회 없는 경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메달은 총점 216.34점을 받은 벨기에의 루나 헨드릭스가 차지했다. 동메달을 탄 일본 스미요시 리온(194.34)과 김예림의 격차는 0.42점에 불과했다. 같은 대회에 출전한 이혜인(세화여고)은 총점 193.49점으로 4위에 올라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바둑 최강' 신진서-'여자 1위' 최정, 삼성화재배 결승 격돌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22) 9단이 3년 연속 삼성화재배 결승에 진출했다. 신진서는 지난 5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준결승에서 김명훈(25) 9단에게 23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3년 연속 삼성화재배 결승에 진출한 신진서는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앞서 2020년과 2021년 대회 결승에서는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이날 신진서는 김명훈을 상대로 중반 실착을 저질러 한때 인공지능(AI) 승률 그래프가 3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명훈이 방심한 틈을 타 후반에 큰 집을 마련하며 전세를 뒤집은 신진서는 이후 깔끔한 마무리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신진서는 삼성화재배 우승컵을 놓고 7~9일 여자 바둑 랭킹 1위인 최정(26) 9단과 결승 3번기를 벌인다. 최정은 전날 열린 준결승에서 변상일 9단을 불계로 제압, 여자기사 최초로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하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통산 상대 전적은 신진서가 최정에게 4전 전승으로 앞서 있다. 삼성화재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

광주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 빅데이터 활용 광주체중 신입생 스포츠유전자 분석 지원한다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연구원)이 광주체육중 신입생에 대한 스포츠유전자(DNA) 분석 지원에 나선다. 연구원은 6일 "스포츠과학센터의 체력측정 및 평가 데이터와 스포츠유전자(DNA) 분석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결과를 활용해 체육중 신입생들에 대한 종목별 신인선수 발굴, 개인별·

종목별 과학적 전문훈련 지원, 부상 후 컨디셔닝 지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 유전자(DNA) 지원 사업은 2021년 전남대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정한성 주임교수, 장수정 담당교수)과 협업해 진행 중인 혁신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체육고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자백
2관	블랙 아담
3관	자백, 리멤버, 미시즈 해리스 파리에 가다
4관	자백
5관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전하떡잎학교, 가재가 노래하는 곳
6관	리멤버
9관	리멤버, 걸리버 리턴즈
7관	씨네커를 인생은 아름다워, 스마일
8관	씨네커를 리멤버, 블랙 아담, 분노의 추격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뷔에르 앙상블
일시 : 2022. 11. 21.(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